

‘정화삼 30억’ 규명 수사 집중

검찰, “노씨 봇 부동산 샀다” 진위 확인

노건평씨 빠르면 오늘 입장 표명할 듯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인수로비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6)씨 측에 사실상 15억~20억원 상당의 세종캐피탈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26일 “정화삼씨 형제가 받은 30억 원 중 일부로 노 전 대통령 형 건평씨 봇의 부동산을 샀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흥기우(58·구속) 사장이 정화삼(61·구속)씨 형제에게 준 30억여원을 정씨의 사위인 이모(33)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세탁 및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30억원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조개 관리했고 그 돈 중 일부로 경남 김해에 있는 상가를 본인 명의로 구입했는데 이 건물이 ‘노씨의 봇’이라는 정황을 짐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노씨가 세종증권 측의 인수 청탁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64·수감 중)에게 전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캐피탈 로비자금 80억원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와 동생 정광용씨(54·구속)에게 건네진 30억 원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노씨 측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에 앞서 정씨 형제는 지난 2005년 4월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6월 노씨를 소개해 줬으며 실제 계약이 체결되자 지난 2006년 2월 30억여원이 든 홍 사장 명의 통장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이씨는 2006년 상반기부터 장인과 처삼촌의 돈을 관리해 오다 2007년 9월부터 6개월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는데, 이씨가 청와대에 근무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잠적한 노건평씨는 27일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또 “정화삼씨는 동생(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할 때부터 집에 몇 번 놀러와 알고 지냈지만 우리 같이 놓아만 짓는 사람이 그런 큰 덩어리(금품)를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깨끗하면 될 일이다. 두고 보면 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 200만명 넘어

25일 215만8,801명

민주당의 ‘종부세 폐지 반대 및 부자감세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이 40일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막판 종합부동산법 개정을 놓고 여권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이 주도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사실상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속을 사고 있다.

26일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용섭 의원(광산을)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종부세 폐지 반대에 서명한 국민은 총 215만8천8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 운동 40여일 만에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이는 정치권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좋은 성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부가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총 6만8천415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 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미 목표치를 60% 이상 초과 달성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강운태 의원 “광주시장 출마 검토”



그러나 강 의원은 “일단 광주시장 출마 여부는 무엇보다도 광주시민의 의사 확인이 중요하다”며 “내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입당 문제와 관련, “이제 법적인 문제도 해결된 만큼 조만간 복당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각종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역경제권 사업 예산 철회’

민주당, 정부에 강력 촉구

민주당은 26일 정부의 30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계획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업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물지마 예산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도 없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에 대한 육성책 없이 선도사업을 추진하면 수도권 규제만 먼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하나님 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공론화

선관위 실태 파악…시의회·시민단체도 필요성 거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보좌관 채용 여부를 놓고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시의회 유급보좌관제가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조심스럽게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선관위는 26일 “광주시의회 의원 18명 가운데 유급 보좌관을 채용하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보좌관 채용 여부 및 보좌관 활동 상황, 보수 지급 내역 등을 따져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정치자금법(9조)에 지방의원이 유급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면 보좌관이 시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역구 관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135조)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보좌관이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및 예산 항목 분석·시정 질문·조례안 제정 등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조하며 길맞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113조)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측 설명이다.

이와관련, 광주시의회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방대한 행정 업무를 의원 혼자만의 힘으로 감시하기에는 버겁다는 점에서 현재 보좌관들의 업무량을 제시하고 ▲도입의 필요성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예산 등을 공개,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자는 것이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동안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을 배출한 “김영선생대학편입”

대학편입 최종마무리반 모집 개강▶12월 1일 첫진도

www.kimyoung.co.kr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9년 편입학 성

대학편입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 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